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정기총회 이모저모 …… 3면
⊙ 화보 …… 4·5면
⊙ 알아두면 좋은 우리 약재효능(민들레) …… 6면
⊙ 민간요법/얼미할때 …… 6면

제11대 생협회장에 임연학 수석 선출

「협회 조직강화에 최선 다할 터…」 소신 피력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제11대 생약협회장에 임연학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경동웨딩프라자에서 열린 생약협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3월로 제10대 이종용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1대 회장에 단독출마한 임연학 수석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는 농림부 원예특작과 이덕로 과장 경동약령시협회 윤영진회장 등 내빈을 비롯 생약협회 회원 1백9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종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본인은 수입개방화로 부터 우리 약재를 지켜내는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국산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우리 생약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왔다』고 말하고 『미력하나마 회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임연학 신임 회장은 『생약협회 부회장으로 몸담아온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미력하나마 협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입후보하게 됐다』고 말하고 『우선 협회조직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생약농업의 기반을 저해하는 불법한약재 수입에 강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각종 생약생산 수매가공자금이 생약생산농가에 지원되도록 관계기관과 최선의 협의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신을 피력。

한편 이날 제28차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97년 예산안은 협회사무국 3억1천2백만원, 상설매장 1억9천3백만원, 총 5억5백30만원이 원안대로 승인 통과됐다。

생약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 등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한약재 상설전시 판매장 설립 추진을 위해 사무국내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 올한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국내생약재 전시포 설치 ▲산학협동으로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1지역 1품 운동 전개로 경쟁력 강화 ▲지역특작목사업 지원자금 활용 강화 ▲국산생약사용에 대한 홍보강화 ▲생약재를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 ▲생약 우수성 및 활용에 관한 학술지 출판 ▲지방자치제와 특화사업에 따른 조직개편 및 강화등이다。

〈관련기사 3·4·5면〉

◇이종용회장이 임연학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생약협회

국산 지황 수매

8천4백24kg, 4천4백만 상당

한국 생약협회는 지난달 31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김천 등지의 개량종 국산지황 8천4백24kg을 kg당 5천2백원에 농가로 부터 수매했다。

그동안 소비단체인 숙지황제조업소측과 적정 수매가를 놓고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채 수매시기를 차일피일 미뤄오던 중 지난달 말 kg당 5천2백원에 막바지 타결을 봄에 따라 늦장수매가 이뤄지게 된것。

이번에 수매한 국산지황을 개량종 「수원1호」로 95년 한국생약협회가 우량품종 육성과 국내자급을 목표로 다수확품종인 북경1호를 들여와 시험재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한 것이다。

종묘분양업자 과대광고로 현혹

피해농민속출 대책마련 시급

「1백평 재배시 1천만원 이상 소득가능」 「2구좌 생산시 1천만원 이상 소득」 「수도작 보다 높은 고소득 보장」 「80만원 투자로 5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이같은 내용의 문구는 일부 종묘분양업자들이 백복령, 천마, 백화사설 초등 한약재등을 재배만 하면 판로가 확실히 보장되고 1백평당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 농민을 현혹하고 있는 과대 광고 내용이다。

실제로 이같은 광고를 믿고 무턱대고 천마를 재배했다가 종균값만 날리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달 27일자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1백평당 1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종묘분양업자의 광고를 믿고 2년전 천마를 재배했던 제주지역 30여 농가들은 평당 3kg이상의 수확을 보장한다던 업자의 약속과는 달리 천마종균을 접종한 참나무 원목이 모두 썩어 버려 수확은 고사하고 참나무 원목과 종균값만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면에 계속〉

신임이사회 개최

이달 중순경

한국생약협회는 새 임원진이 구성되는 대로 오는 4월 중순경 신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앞으로의 회무추진 방향과 협회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제28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영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문준전)
대한한약협회(회장 강용현)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최준섭)
서울경동약령시협회(회장 윤영진)
한약도매협회 서울지회(회장 오금진)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호현)
고려한약유통공사(사장 최용두)
네오텔레콤(주)(서형진)
조흥은행 제기동지점(지점장 송영배)